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4:30pm
주일	8:30am - 1:30pm

(다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입당 : 239 파견 : 44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시편 67, 2-3, 5, 6, 8)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May God bless us in his mercy.

(Psalm 67:2-3, 5, 6, 8)

- May God have pity on us and bless us; may he let his face shine upon us. So may your way be known upon earth; among all nations, your salvation. ◎
- May the nations be glad and exult because you rule the peoples in equity; the nations on the earth you guide. ◎
-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May God bless us, and may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him! ◎

문 (1)

우리 모두 성당 문을 드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까. 문이란 도대체 무엇하러 있는 것일까.

무슨 말을 그렇게 묻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문이야 물론 드나들라고 있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야 그렇다. 하지만 드나드는 데 구태여 문이 있어야 할 것도 없다. 벽에다 큼직한 구멍을 하나 내면 될 일이고, 여닫는 것은 든든한 빗장을 하나 꽂고 판대기나 갖다 대면 안될 것도 없다. 그레 놓으면 사람들 드나들기에도 도리어 편하고 값도 적게 먹히고 실용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걸 “문”이라 일컬을 수는 물론 없다. 문이란 그저 쓸모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문 나름으로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 바깥에는 세상이 있다. 아름답고 생동하고 창작하는 세상이다. 거기에는 또 추악하고 저속한 것도 있다. 어수선했던 장터처럼 제가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붐비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스럽지 못한 곳으로 여기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문을 지나면서 장터와는 분별된 조용하고 축성된 내부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는 성소이다. 물론 천하만물이 하느님의 업적이며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하느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대해주실 수 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서 받아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축성해야 한다. 그런 줄 알면서도 하느님께 따로 축별된 곳이 있음을 아울러 의식해 왔다.

문은 바깥과 안 사이에, 장터와 성역, 세속 것과 하느님께 축성된 것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하여 우리가 그 문을 지날 때면 “이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생각·소원·근심·호기심·허영할 것 없이 모두 밖에 놓아두고 들어오시오. 성역에 들어오는 만큼 자신을 정화하십시오”하고 말해준다.

2025년 정기 회년

주제: 희망의 증인

기간: 2024년 12월 24일 (성탄대축일 밤미사) -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

성 베드로 대성당 (2024년 12월 24일) 성문 개방식을 시작으로 2025년 정기 회년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Rebibbia 교도소 (2024년 12월 26일), 성 요한 대성당 (2024년 12월 29일), 성모 마리아 대성당 (2025년 1월 1일), 성 바오로 대성당 (2025년 1월 5일) 성문을 개방할 것입니다.

회년 로고의 주요 요소 및 그 의미

- 1. 네 명의 인물:**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사방'에서 모인 모든 사람을 상징하며, 민족과 문화를 초월한 일치와 형제애를 나타냅니다.
- 2. 십자가:** 맨 앞의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 3. 파도의 물결:** 출렁이는 파도는 삶의 여정이 항상 평탄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개인적 상황과 세상사의 우여곡절 속에서 더 큰 희망이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 4. 닻으로서의 십자가:** 파도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닻은 십자가의 아랫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닻은 흔히 희망을 상징하며, 폭풍우 속에서 선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희망의 닻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5. 공동체의 여정:** 순례자들의 행렬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역동적인 여정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느라 휘어진 형상은 십자가의 역동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 6. 표어:** 로고에는 2025년 회년의 표어인 '희망의 순례자들'이 녹색으로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희망을 품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A 대교구의 순례성당 :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 Los Angeles

Mission Basilica San Bonaventura, Ventura

회년 전대사 :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회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교황청 내사원 (별지 참조)

회년의 기원은 레위기 25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년'은 히브리어 '요벨(Yobel)'에서 유래했습니다. 회년의 선포를 알릴 때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의 회년은 7년 주기의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번째 되는 해에 선포되었습니다. '노예해방, 부채탕감, 토지반환, 안식'이 회년에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때 회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후 100년마다 지내고자 했지만, 1343년 클레멘스 6세 교황은 50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변경했고, 1389년 우르바노 6세 교황은 33년 주기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33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후 1470년 식스투스 4세 교황은 25년으로 회년 주기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50년 주기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은 회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25년 주기를 확정한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며, 새로운 천년기의 시작을 하느님께 봉헌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를 주제로 한 자비의 특별 회년(2015-2016)을 선포하여, 자비의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